



## 21세기와 새복음



김병숙  
지음

2011 무화과

UFO 뉴에이지 씨리즈 2권

## 21세기와 새복음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영수  
지음

무화과

## 21세기와 새복음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mailto: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http://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http://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jesu-ufo.com](http://homepage.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7-8



오늘날의 어떤 교파들은 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의 나의 승천에 대해서는 짝막하게 설명하고 만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있지 않으며,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다.<sup>1)</sup>

오늘날 인류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발전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2천년 전에 주었던 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오직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심각한 맹목적 숭배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참된 메시지 대부분을 제거해 버렸다.....나는 어떤 인간도 하느님과 직접적인 내면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지(靈智)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왔었다. 이것이 내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1)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2012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 < 서문 >

우주인 예수인 사난다님도 우리 우주의 지고자이자 통치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도 성서의 자구(字句)를 그대로 믿는 고대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젠 지구 시민인 동시에 우주의 시민이라는 자격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주 시민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천문학적으로 우주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저 무한할 정도로 광활한 우주를 일사분란하게 운영하시는 삼위일체 신성들과 그 이하 한없이 넓게 퍼져나가는 우주적 사회구조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행성의 주권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 환절기를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행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 우주/네바돈 소우주의 지고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는 아래와 같이 우주의 사회적 구조에 대해 알려주셨다.

여러분의 우주에는 '중심태양(Central Sun)'이 있는데, 이는 '중심불꽃(유일자)'의 위대한 태양에서 나온 빛의 입자들이다. 이 빛의 입자들 안에는 위대한 지고자(至高者=7성령)들이 존재한다. 이 지고자들은 은하간 연맹이라고 하는 물질에테르계들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여러 주재자들을 임명한다. 이들 반(半)물질 존재들과 세계들은 지구보다 훨씬 진보해 있다. 이들은 함대사령관, 우주통신 담당자, 천상 순찰대, 우주선 기술자, 과학자, 수학자, 건축가, 피라미드 전문가, 차원입구 수호자 등등 고도로 전문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 중 일부를 지구에서는 UFO나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1)</sup>

먼저 중심태양과 중심불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안에 위대한 지고자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위대한 지고자'들이란 아주 까마득한 우주 태고

1) 은하문명 간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에서 인용.

에 7분의 신성체들이 힘과 지혜를 합해서 우주를 일사분란하게 경영해 보자고 최초로 우주 통일체를 만든 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서 고차원이 될수록 태양 속의 행성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태양과 중심불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은하간 연맹’의 지도자들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우주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대우주와 소우주로 분류되고 다시 은하들의 집합인 ‘은하간 연맹’이라는 통치단위가 필요한 것이다. ‘은하간 연맹’이라는 명칭은 성 저메인의 메시지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분도 그 공동체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우리 은하도 그 연맹의 하나일 터이고, 연맹의 최고 지도자를 ‘위대한 지고자’, 즉 7엘로힘들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시리우스 우주인의 설명이다. 종교교육의 최종목표는 흠이 없는 우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때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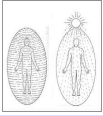
3차원의 낮은 수준에서는 외계인을 신격화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신이 여러분 밖에 있다고 믿는 시간적 주기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우렐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을 위해 배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sup>2)</sup>

저자 김 병 숙

(사용된 인용문들과 조각그림들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차후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2) 새천년 간 ‘UFO와 외계문명의 메시지’에서 인용.



< 차례 >

1부 21세기와 새복음

- 1.창세기는 과학적이다...../13
- 2.히브리 신화와 수메르 신화
- 3.아담과 이브의 생애
- 4.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 5.종교와 뉴에이지
- 6.천사와 우주인...../39
- 7.에녹의 우주여행
- 8.여호와와 어떤 존재였나?
- 9.하느님의 일곱 영
- 10.신약성서는 우주의 표준형 교과서
- 11.천지도 성자도 불인하다...../64
- 12.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 13.어린 성자 이사
- 14.쌍둥이 도마와 도마행전
- 15.성령과 일곱귀신
- 16.인간 창조의 역사...../91
- 17.영적이란 무슨 뜻일까?
- 18.원죄와 에덴동산
- 19.에덴동산과 신시의 무위지치
- 20.예수님의 말세론
- 21.공정의 힘과 죄의식...../111
- 22.‘신은 만물의 대원리다’
- 23.‘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 24.‘추락’이란 어떤 것이었나?
- 25.감각적 삶과 지적적 삶
- 26.21세기 사도 바울...../130
- 27.기독교의 아킬레스건
- 28.새시대를 위한 새복음
- 29.우주에도 보수/진보가 있다.
- 30.새복음의 압축적 의미...../147
- 31.신앙에서 확증으로 이어주는 다리
- 32.미래형 소망과 현재형 확증
- 33.십자가 고난의 우주적 의미
- 34.‘낙원섬’과 블랙홀...../159
- 35.나의 명에는 가벼우니....
- 36.‘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 37.21세기와 요한계시록...../168
- 38.여성적 에너지와 하느님의 불꽃
- 39.무지와 숭배, 인식과 깨달음
- 40.‘추락’은 죄가 아니었다.
- 41.인간도 창조자다...../181
- 42.영혼적 여정의 ‘우리천장’
- 43.두뇌과학과 자아와 영혼
- 44.‘당신 자신을 구원하라’
- 45.‘긍정’과 ‘거듭남’.....192
- 46.교회는 결코 붕괴되지 않는다.
- 47.모세-예수-사난다
- 48.가우디 건축물의 메시지
- 49.단체 신곡의 코메디적 요소../203
- 50.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 2부 성숙한 신앙 >

- 1.우주의 거대한 이사철...../215
- 2.자유 의지와 우주의 법...../218

- 3.근원적 정체성의 이해
- 4.신성이란 무엇인가?
- 5.애벌레-고치-나비
- 6.낙원섬과 중앙우주...../235
- 7.우주도 성장하고 진화한다
- 8.영혼과 초물질
- 9.가상현실과 영혼
- 10.‘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 11.천국의 백성들...../256
- 12.생각의 초점을 밖에서 안으로
- 13.안에서 다시 밖으로
- 14.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갈 때에
- 15.통신장비로서의 행성고리...../275
- 16.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 17.하나됨이 절실한 시대의 일꾼들
- 18.옛것과 새것의 만남
- 19.이웃을 사랑하라/너 자신을 사랑하라...../292
- 20.약간의 혼란스러움
- 21.여성적 에너지와 하느님의 불꽃
- 22.개미떼와 신의 손
- 23.신은 곧 지성이고 지혜다
- 24.다시 필요한 종교개혁...../311
- 25.차원간 벽이란 어떤 것일까
- 26.물과 물고기, 신성과 인간
- 27.인간과 별에게는 순환적 삶이 있다.
- 28.쌍둥이 지구와 새-예루살렘 도시
- 29.지성은 높게 인성은 겸손하게../329
- 30.우주 시민의 자격증
- 31.머리와 가슴, 과학과 종교
- 32.박테리아와 미토콘드리아
- 33.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34.월자의 99.99% 이상과 사념.....349
- 35.이미 죽은 종교를 가지고
- 36.미세먼지와 종교의 역할
- 37.과학에 대한 경시와 신앙의 관계
- 38.쓰레기 규격봉투와 인간성의 문제
- 39.새복음과 21세기 샤머니즘...../367
- 40.동/서양의 가치추구는 같다.
- 41.사랑에 다가가는 단계들
- 42.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
- 43.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 44.끝맺음의 글...../382





< 1 > 창세기는 과학적이다.

필자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를 끄는 내용들이었고 많은 의문점들도 있었다. 왜 하느님은 여자를 더 죄인 취급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모세시대의 기적들이 정말 실재한 사건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성경은 나의 애독서가 되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창세기는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창세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서는 다른 믿음을 예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심히 읽던 중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은 그리스 신화를 축소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에녹이란 사람이 하느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도 커다란 흥미꺼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읽다보니 또 커다란 의문이 생겼다. 창세기에서는 왜 빛이 나타났다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되풀이하고 있으며, 또 왜 별들을 창조한 것이 나중에 순서로 취급되었나 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도 또 되풀이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각기 그 기록자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5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느님이나 그 천사들과 자주 접촉할 때 천사들의 지시와 안내에 의해 기록된 문서라고 한다. 그렇게 천사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토라(모세5경)는 글자 한자 한 획이라도 고쳐 써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기록자가 두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73년에 불란서 사람 보리롱을 접촉한 엘로힘이란 우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창세기의 기록들은 자기네 행성의 과학자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발견한 후 행성에 발걸이를 하고, 거기에 생명을 이식한 실제상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느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원본에 '엘로힘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 이라는 복수형의 단어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창세기의 기록들은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엘로힘'이 발견한 지구라는 행성은 물이 온통 지표를 덮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터운 구름층이 수면 위를 덮고 있어서 지표는 어두운 상태였다. 그런 상황을 살핀 후에, 즉 수면 위를 운행한 후에,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6-7절) 지구에 공기층이 형성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름은 자연적으로 위로 높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구름처럼 말이다. 그렇게 두터운 구름층을 지표로부터 멀리 상공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표에는 빛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야기들을 시간적으로 압축해 놓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겨우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이었다. 구름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빛을 가지고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작업에 착수했을 것이다. 또 다른 작업이란 궁창 위, 즉 창공 위의 구름층을 냉각시켜 얼음층으로 만드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아담의 후손들이 낙원으로로부터 쫓겨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까지 1천년 가까운 수명을 누렸다는 것은 얼음으로 된 보호층이 해로운 우주 방사선들을 걸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음층으로 변한 창공 위의 물은 얼음의 프리즘화 현상에 의해 태양빛을 확대 투과시켜 더욱 밝게 지표를 밝혔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빛이 아니라 14장의 '광채'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별들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고 그 별들의 운행에 따라 한 해와 한 달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양 신화에서는 태초의 신 반고(盤古)가 천지를 개벽한 후에 하늘과 땅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키로 하늘을 떠바쳤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아틀라스 신이 싸운 결과 아틀라스가 패해서 그 어깨로 하늘을 떠바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태초의 하늘은, 아니 얼음층은 현재와는 달리 대류에 의해 제멋대로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일정 거리에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보호막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구는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되었고 인간도 창조해 놓았다. 다른 행성에서 가져온 인간 유전자를 이용해서 시험관 인간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아니,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으니 '엘로힘'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이용해 인간을 창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대 역사에 대해서 만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느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고, 산과 들은 식물도 없는 민둥승이 땅이었으며, 경작할 인간도 없다고 했을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모든 동식물과 인간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주인들이 전해주는 지구의 역사에 의하면 지구는 지난 수억년 혹은 수천만년 동안 많은 굴곡과 변화를 겪은 행성이라고 한다. 그런 변화와 재앙을 통해 태초의 지구는 초토화 되었고, 그런 지구에 다시 생명체를 이식한 작업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창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는 현재의 지구 생태계를 낳은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고 지면에 안개만 자욱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파괴되었거나 없어졌던 창공 위의 물, 즉 얼음층의 보호막을 다시 설치한 것이다. 우주인들이 지구에 와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는 다시 태초의 거대한 온실이 복원되었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비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야만 만들어진다. 온실 속에서는 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 공기

중에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지면의 안개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각기 그 주체자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때의 일'이라고 구분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장의 창조는 지구 태초의 이야기이고 2장의 창조는 현 호모사피엔스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현재 지구인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개스는 그 원료가 고대 지구의 동식물 사체라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지식이다. 지표에서 사라진 무성한 식물과 동물들이 지각변동에 의해 땅 속에 묻히면서 생겨난 지하자원인 것이다. 지구가 거대한 온실이었다는 증거다.

히브리 신화서 중에 '아담의 증언'이란 문서가 있다. 아담의 아들 세스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글로 남겼다는 문서다. 세스는 하느님의 배려하에 특별하게 태어난 아들이었다.

'아담의 증언'에서 아담은 하루를 밤 12시와 낮 12시로 나누어 말하는데 밤 1시는 초저녁이고 낮 1시는 새벽이다.

.....밤 4시는 세라핌(호위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이다. 내가 에덴동산에 살 때는 그들이 찬미하며 날개를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그 후에는 듣지 못했다<sup>1)</sup>...(에덴에서 쫓겨났으므로)

밤 5시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찬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들과 함께 세찬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이 찬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세찬 파도소리란 무엇이었을까? 얼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이 지상에 내리기 전에 수분을 규합하는 과학적 장비의 소리였을 것이다.

밤 6시는 구름들이 형성되는 시간, 한 밤중에 밀려오는 엄청난 두려움의

---

1) 이상 모두 문학수첩 간 '숨겨진 성서'에서 인용.

시간이다.

밤 7시는 물이 잠드는 동안에 그 물의 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하느님의 사제는 이 시간에 물을 길어서 거룩한 기름과 섞고, 그 기름을 환자들에게 발라주면 환자들이 편안해진다.

밤 8시는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지상에서 풀이 솟아나는 시간이다....

위에서 말하는 구름과 물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하늘을 진동시키는 세찬 바람소리가 안개를 구름으로, 그리고 다시 얼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을 것이다. 과학적 지식이 없는 아담과 이브에겐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밤6시(12시)에 구름이 형성된다는 것은 비가 되어 내리기 전에 수분을 규합한다는 뜻이고, 밤7시(새벽1시)에 물이 잠들고, 밤8시, 즉 새벽 2시에 이슬이 내린다고 했다. 물이 잠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낮 동안에 대기를 가득 채웠던 안개가 구름에서 얼음으로 변한 동시에 그 나머지가 이슬로 내렸을 것이다. 그 이슬을 받아 모아진 물은 환자에게 사용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는데,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각종 해로운 방사선을 얼음층이 걸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천년 가까운 수명을 살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격암유록에 의하면 천지가 개벽된 후에는 감로(甘露), 즉 단물 같은 이슬이 내리는 기상조건이 지구에 만들어지며, 그래서 무병장수하게 된다고 한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9백세를 넘겨 살았으나 노아 이후로는, 즉 하늘의 보호막이 사라진 후로는 수명이 점점 줄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제들이 그 시간에 길은 물을 환자들에게 사용한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과 이브 이외에도 다른 인간들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 아마도 그들은 에덴동산 밖에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었을 것이다.



## < 2 > 히브리 신화와 수메르 신화

영국사람 레이어드에 의해 메소포타미아의 고대문명 유적지들이 발굴되고 독일인 쉴레만에 의해 트로이의 유적지가 발굴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유럽에서 UFO들이 나타나 성모발현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그 시기와 일치한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지구인들은 신화적 이야기들이 실재했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 창세기는 오히려 그 권위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옛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되기 시작한 수메르의 신화가 창세기의 원전이었을 것이라는 고고학자들의 추측과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메르 문명은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었고 영국인 레이어드가 발굴한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지들은 대홍수 후에 있었던 노아 후손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수메르인들의 신화를 말해주는 점토문자와 노아 후손들의 유적지가 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둘을 하나의 신화로 간주한 큰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 문명은 대홍수 이전에 잠깐 있었다 대홍수와 함께 사라진 문명이었다. 홍수 후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은 창세기의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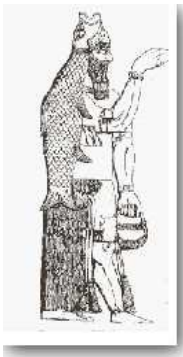
그런데 수메르의 점토문자에서도 인간창조와 홍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지만 수메르와 히브리 신화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

기들이다. 대홍수 이전에는 수메르와 아담의 후손들이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왕궁 도서관에서 수메르 문자들이 발굴된 것이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서학과 수메르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철수 박사가 펴낸 책('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수메르의 신들은 수륙양생의 양서류 종족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는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비인간형 종족이라는 사실도 우리나라의 자생종교인 증산교 경전에서 말해지고 있다. 알타이족의 출발지였던 중앙아시아와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는 이웃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서로 교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용궁에 관한 설화들이 많은 것도 우연한 현상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12-환국은 '하늘'에서 파견된 12-멜기세덱이 세운 국가들이었고 7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수메르의 신들도 그 12-멜기세덱에 속하는 우주인들이었던 것이다.

수메르의 인간창조 신화는 관개시설을 만드는 데 동원될 노동력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홍수에 관한 신화도 히브리 신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수메르의 우파니쉬티는 홀로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딜문'이라는 영생의 도시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도시는 **바닷가 선창을 통해 들어가는 곳이고, 짐승도 없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도시**라고 점토판 글자들이 묘사한 것은 수메르의 신들이 양서류 우주인들이었고 지금도 바닷속 용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산선생이 알려준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영국사람 레이어드가 발굴한 '님로드' 언덕의 고대 유적지는 수메르의 유적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 중에 님로드/니므롯이 세운 도시들이었다는 것이다. 아래는 창세기 10장의 내용이다.

**함(노아의 둘째 아들)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지배자였으며 시날(메소포타미아)땅의 바벨, 에렉(우ruk), 악**

갓, 갈레 등의 도시를 건설하고 아씨리아 때에는 니느웨, 르호봇일,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다....

히브리 민족은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시대까지 문자가 없었다고 에녹서는 말한다. 홍수 이전에는 이웃한 수메르 종족과 교류하며 살았기 때문에 수메르 문자인 썬기문자를 함께 사용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니느웨 유적지에서 썬기문자들이 발굴된 것이다. 그리고 썬기문자 서판의 내용들 속에 수메르 신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서의 창세기 내용들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된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 탐사대가 만난 예수님(재림예수)과 붓다님 그리고 주변의 대사(大師)들은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고대 사원들을 활동무대로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초기활동이 있었던 지역이었다고 애매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독일의 홀거 케르스텐은 그 지역이 에덴동산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초인생활'의 행간의 의미들을 잘 읽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의 성경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성장기, 그리고 부활 후의 삶이 인도와 그 북부의 캐시미르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사들은 히말라야 산맥의 고대 사원들을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 많은 피흘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과 여호와에 대한 뉴에이저들의 거부감 때문에 유대교의 최초 역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캐시미르와 인도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 고대의 인도는 '라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라마는 노아의 손자였고 인도의 백인족, 즉 아리안 족이 서쪽에서 인도반도로 이주해 온 종족임은 역사학적 정설이다. 인도의 고대 언어였던 썬스크리트어가 히브리어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아리안 족의 조상이 노아의 손자 라마였다는 증거다. 현재의 이란 북동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의 증손자 도갈마였다고 믿고 있다 한다.

기원전 7백년 경에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한 후, 이스라엘 10부족이 어디론



가 사라졌다 한다. 솔로몬의 전성기 이후 이스라엘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된 남왕국과 나머지 10지파가 백성을 이룬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었다. 그런데 북왕국이 아씨리아에 의해 망한 후 그 대부분 백성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이 바로 현재의 캐시미르 지방이었던 것이다. 캐시미르는 물론이고 현재의 아프카니스탄 주민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인이었음을 주장한다고 한다.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할 때도 그곳 인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비경전 '도마행전'에서 말하고 있다.



### < 3 > 아담과 이브의 생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신화 중의 신화다. 그런데 여기 그 신화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서들이 있다. 이 문서들은 히브리인들이 '아킬레아 문헌'이라는 이름을 붙여 특별히 취급해 온 문서라 한다. 아킬레아 문헌이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 만들어진 문헌을 뜻하며, 히브리의 조상들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 취급했다 한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문서의 말미에 이 문서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묘사하고 있다.

세스(셋)가 석판과 진흙판들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의 생애, 즉 자기가 부모로부터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을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그 판들을 아버지 아담이 평소에 주님께 기도하던 장소에 보관했다. 대홍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판들을 보았지만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 기록을 보고는 주님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해독해 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담의 아들 세스가 석판에 기록할 때, 그 자신은 무엇을 기록하는지도 몰랐고, 내가(천사) 세스의 손을 잡고 기록해서 남긴 것이요. 그리고 당신(솔로몬)은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이 아킬레아 문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담이 기도하던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게 될 것이요."<sup>1)</sup>

1) 이하 모두 문학수첩 간 '숨겨진 성서'에서 인용.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다. 그 기세에 밀려서 히브리의 신화서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성경 창세기에 히브리 신화가 간략히 소개되고는 있지만 그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본으로서의 신화서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는 히브리 신화서들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1945년과 '47년에 이스라엘 사해 근처와 에집트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문서들 중에 그 신화서들이 들어 있었으므로 해서 갑자기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 히브리의 원본 신화서들이다. 성서외경, 혹은 비경전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문서들이다.

그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담과 이브에 관한 문서들이다. 아담과 이브에 관한 신화서들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집트나 에디오피아, 시리아, 그리스어로도 기록된 문서들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문서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발견한 석판의 기록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들은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문서들의 원전이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 비경전 문서들이 그렇듯이 아담과 이브의 생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이 시대의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행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고대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단순한 흑백논리로 만들어진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21세기의 지구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의심이 간다면 우선 신들에게 시간여행이라는 편리한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언서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를 다룬 문서가 사탄을 비난하기 위한 문서처럼 보이지만 세심히 읽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정말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로 살았고, 자신들의 육체가 생식능력이 있어서 남녀가 몸을 섞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그들이 성욕을 느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은 사탄의 부하들이었다. 동굴 앞에 불을 질러 불의 사용법을 가르치려 한 것도 그들이었다 한다.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께 속죄를 비는 의미에서 40일 동안이나 강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날 동안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몸이 얼어붙을 정도가 되자 하느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강물에서 나오라고 한 것도 사탄의 부하들이었다 한다. 아담은 20세 청년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에 21세기의 지구 생명공학이 복제인간을 탄생시키게 된다면, 그 육체가 20세 청년으로 인공자궁 속에서 태어난다면 아담과 같을 것이다. 몸은 20세 청년이지만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탄과 그 부하들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과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려 했을 것이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악기를 만드는 법과, 옷감을 짜고 염색하는 법,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방법이었다 한다. 그런 것을 가르친 것도 사탄의 부하들이었던 것이다. 악기 만드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음악을 통해 정서적 분위기에 잠기고, 정서적 감정에 의해 살아나는 육체적 욕망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 살았을 때는 빛나는 천성을 지녔었다고 한다. 빛나는 천성이란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아담이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었음을 뜻한다. 5차원 세계의 인간들이 텔레파시, 신이(神耳), 신안(神眼) 같은 초능력의 시청각을 가졌듯이 아담과 이브도 그랬던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아의식의 결여였던 것이다.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다면 그는 로봇인간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탄의 교육론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낙원에는 인공태양이 있어서 밤이 없는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들이 특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정형화된 인간으로, 즉 자아의식이 결여된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으로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부터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연인이 필요로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무화과가 제공되었다 한다. 에덴동산 안에서는 인공 태양이 제공하는 에너지 만으로 생명유지가 가능했지만,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처음 제공된 것이 무화과 열매였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아의 의식에 로봇 같은 특수능력을 지닌 정형화된 인간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돌아간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신과 사물에 대해 배우고 지혜를 쌓아가야 할 성장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종교적 도그마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아담에 관한 문서를 읽는다면 사탄은 여전히 사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적 지성이라는 수준에서 읽는다면 많은 행간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에덴동산에 있었던 인공태양은 인간의 육체가 5차원의 생명체(12가닥 DNA)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었을 것이다.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육체에 변화가 발생했고, 문서에 의하면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는 다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 육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자기적 육체는 소량의 수분만을 필요로 하는데, 우주인들은 그런 육체를 분자식 육체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들의 후손이 900년 이상의 수명을 누린 것은 대홍수 이전까지는 지구의 상공에 얼음층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 '창공 위의 물'이라고 한 냉각된 구름층이 우주로부터의 각종 해로운 방사선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얼음층이 녹으면서 40일 동안이나 비가 쏟아져 대홍수가 발생했고, 보호막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수명이 줄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의 지구인들이 2가닥 1쌍의 유전자를 지니게 된 것이 유전자 조작 때문이라는 우주인들의 메시지를 상기해 보자.

지구 태양계는 지금까지 플레야데스 성좌의 가장자리 위치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리우스 성좌로 자리옮김을 할 것이라 한다. 그 시리우스의 한 우주인은 에덴동산의 설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미개한 인류 앞에서 마치 신(神)처럼 행세하던 그들은 DNA 조작을 통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모르도록 막아놓으려 했습니다. 즉 자기들이 다루기 쉽도록 인류를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함으로써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2)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낙원 같은 동산에서 천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지만 자신들이 벗은 존재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시리우스인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여러분 행성에서 아주 오래 전에 호모 사피엔스 인종에게 유전조작이 행해졌을 때 다양한 외계인 그룹들 사이에 많은 정치적 내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계인들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또 아직도 일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시리우스인들은 이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또 때로는 매우 비밀스럽게 인류를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영성이 잠들어 있었던 지난 3차원의 시대는 외계인을 신격화하는 주기의 시대였습니다....여러분들이 저 높은 곳에 있다고 믿어온 창조주나 기타 아름다운 존재들은 사실 여러분의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이 우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과 우리가 여러분보다 더 높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영속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신성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시 우리가 타임캡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에너지적이고 에테르적인 수준에서 이식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임캡슐들은 여러분의 은하계적인 기억과 여러분 세계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혈통에

---

2)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박찬호 편저 '외계문명의 메시지'에서 인용.

관한 역사를 저장하여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임캡슐이란 5차원 생명체의 요체인 12가닥의 DNA를 잠재적 가능성으로 잠들게 하는 조처를 취했다는 뜻이다. 고차원의 DNA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도록, 훗날 시간이 되면 다시 재생시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 속에 넣어 잠가놓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지구인들은 두뇌기능의 십분지 일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 속에서 잠자고 있는 타임캡슐을 깨우기 위해 명상을 하라는 것이다. 인도의 요기승려나 불교의 큰스님들, 한국의 신선들은 타임캡슐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상과 참선 수행을 통해 그것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언제까지나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20년 동안만 그들에게 여유를 주겠다." 3)

사람이 죽어야 할 육체라는 것은 3차원 생명체로 추락했음을 의미하고, 내 영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에게 유전자 조작이 실시되어 12가닥 DNA가 비활성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에 대한 유전조작은 흑/백 양진영에서 서로 상대방이 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여성 우주인 '나다'가 사실추궁에서 자신들이 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재림 사무국) 그 결과 좌뇌와 우뇌로 분리된 형태가 되었다 했으니 백의 진영에서 한 것임은 분명한 것 같다. 같은 말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도 했음이 은하문명에서 출판한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 실려 있다.

---

3) 창세기 6장 3-4절



#### < 4 >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에덴동산은 네 개의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있었다고 한다. 네 개의 강이란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기혼강과 비손강이었다고 한다. 비손강은 순금과 보석과 진귀한 향료가 생산되는 하월라 땅을 흐르고, 기혼강은 구스땅을 가로질러 흘렀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사전에서는 기혼강과 비손강이 흐르던 하월라, 구스가 어느 지역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구스는 노아의 손자이고 하월라는 또 구스의 아들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와 증손자의 이름이 구스와 하월라였던 것이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러면 기혼강과 비손강은 어디를 흘렀을까? 지도를 펴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처럼 아라랏 산맥을 발원지로 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거쳐 카스피해로 들어가는 두 강이 있다. 그 강들이 현재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덴동산은 아라랏산 지역에 있었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창세기 13장에는 천사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내가 네게 줄 땅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제2의 창세기'라는 문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모든 땅을 답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기혼강에서 출발해서 기혼강으로 돌아왔다. 처음 기혼강에서 출발한 후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타우로스 산맥을 만났다고 한다. 타우로스 산맥은 터키의 남쪽해안을 달리다가 동북쪽으로 아라랏 산맥 쪽



으로 뻗어올라간 산맥이다. 아브라함은 타우로스 산에서 동쪽으로 향해 가다가 유프라테스강의 상류를 만나며,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남하해서 페르샤만에 다다랐다고 한다. 거기서 아라비아 반도 남단을 따라 홍해의 입구까지 와서 홍해를 따라 여행해서 다시 기혼강으로 돌아왔다고 비경전 문서는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말해주는 지도를 찾아보니 아브라함의 정착지 벰엘과 헤브론 북쪽에 기손강이라는 작은 강이 표시되어 있고, 다른 지도에는 기스훈이라는 지명이 같은 곳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손강은 기혼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혼강의 수원지는 가까이 있는 갈멜산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기혼강이 창세기 13장의 기혼강, 즉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강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기혼강은 에덴의 기혼강에서 그 이름을 따다가 붙인 이름이었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에 관한 신화서에 들어가 보면, 에덴동산의 보다 자세한 위치를 짐작케 해준다. 낙원의 동쪽 정문 밖에는 낭떠러지의 절벽이 있고, 그 절벽 동쪽으로는 무한히 펼쳐진 넓은 바다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낙원의 북쪽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맑은물의** 바다가 있다고 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분명 아라랏 산맥을 수원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강의 발원지였던 에덴동산도 아라랏 산맥 속에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동쪽에 넓은 바다가 있었다면 그 바다는 현재의 카스피해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에덴동산은 아라랏 산맥 중에서도 동쪽 끝 카스피해 해안 절벽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에덴동산 동쪽에 있었다는 바다와 북쪽에 있었다는 **맑은물의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아담의 6대 후손인 에녹에 관한 많은 문서가 있다. 그런데 '제3 에녹서'에는 **카스피엘**이라는 파괴의 천사 이름이 나온다. 카스피엘과 카스피해는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 즉 파괴의 천사 카스피엘은 파괴의 힘(과학적 힘)으로 그 지역의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현재의 카스피해는 이상하게도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함께 살고 있다 한다. 또 카스피해는

35년을 주기로 호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다. 아마도 그곳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시대에는 현재의 카스피해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호수였을 것이다. 그중 북쪽의 것은 민물호수(맑은물)였고, 남쪽 즉 에덴동산 동쪽의 것은 바닷물의 호수였으나 카스피엘이라는 파괴의 천사가 지각운동을 일으켜 하나로 합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카스피해는 민물고기와 바닷물 고기가 함께 사는 거대한 내륙의 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또 카스피해의 호면 높이가 35년 주기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는 것은 그 호수가 지하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별한 지질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신화서들은 에녹이 승천한 장소가 **아쿠잔**이었다고 한다. 아쿠잔이라는 고대의 지명이 지금의 **바쿠**(아제르바이잔의 수도)라는 지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산**(아라랏 산맥)의 **남쪽 검은 색의 땅**(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살았지만 셋째아들 세스의 후손들은 **산의 북쪽**, 즉 현재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살았다고 한다.(아담과 이브의 책 제2서)

에덴동산은 카스피해 서쪽 연안에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바다 같이 넓은 카스피해 건너 중앙아시아가 단군신화에 나오는 12환국이 있었던 지역이다.

카스피해는 우리나라의 전 영토보다 더 넓은 내륙의 바다인데, 그 북쪽 끝은 시베리아이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이고, 서쪽은 카프카즈 산맥(코카서스산맥)아래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서남쪽은 터키와 이란에 접해 있다. 에덴동산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곳은 아라랏 산맥의 동쪽 끝 카스피해 연안이었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에덴동산의 서쪽, 즉 현재의 터키 지방에서 대홍수를 만난 것이다.

**이 서쪽 경계선 지방에는 너의 자손이 와서 번식하고, 사탄의 행실을 본받아 자신들을 더럽힐 것이며 그들은 홍수로 망할 것이다....<sup>1)</sup>**

---

1) 이하 모두 문학수첩 간 ‘숨겨진 성서’에서 인용.

대홍수 후에 노아의 방주가 기착한 곳도 아라랏 산맥의 어떤 지역인 루바루 산이었다 한다.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은 최초의 정복자였으며 메소포타미아에 많은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북쪽에 세운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고 창세기는 말한다. 또 아라랏 산맥과 코카서스 산맥은 부산과 서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으며, 백인을 의미하는 코캐시안(Caucasian)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에덴동산에 아주 가까웠던 코카서스 산맥에 있다는 사실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아담의 먼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가나안 지방도 에덴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불과 우리나라의 함경도 끝에서 전라도 목포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살았으며 거인들을 낳았다는 땅, 그리스도 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에덴동산이 있었던 지역인 아라랏 산맥, 그리고 거기서 아주 가까운 코카서스 산맥, 코카서스 산맥에 다시 가까운 **아스트라잔** 지역은 인류학적 산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코카서스는 백인의 요람지였고 아스타라잔은 황인종의 요람지였기 때문이다. 황인종의 조상인 **나반**과 **아만**이 처음 만난 곳이 **아이사타려아**, 즉 **아스트라** 지역이었다고 환단고기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아스트라는 바로 카스피해의 북쪽 연안 지역, 다시 말해서 중앙아시아의 서쪽 끝이며 볼가강이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곳이다.

코카서스 산맥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를 일직선으로 달리며 남북을 갈라놓고 있다. 마치 북쪽의 인종(황인종)과 남쪽의 새로운 인종(아담의 후손들)을 갈라놓기 위해 만들어진 고산의 분수령 같은 인상을 준다. 카스피엘 천사가 파괴의 힘으로 그 지역의 지형을 바꿀 때 두 호수 사이에 있었던 육지는 없어지고 코카서스 산맥은 솟아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인종(황인종)과 새로 창조한 아담의 후손들이 섞이지 않도록 인종의 분수령

을 만들었을 것이다.

환단고기의 연대기에 의하면 황인종의 조상 나반과 아만이 **아이사타리아**에서 출발한 것은 기원전 약 7천년 경이었다. 히브리 신화서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것은 기원전 약 4천년이었다. 지구에 이미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창세기의 시대로 돌아가 그 면면을 알아보자.

**“나(아담)는 930세나 되었다. 내가 죽으면 하느님의 위대한 거처인 동쪽을 향해 묻어라”**, 하고 아담은 아들 세스에게 말했다....<sup>2)</sup>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은 에덴의 서쪽에 살았다는 뜻이 된다.

**“이 서쪽 경계선 지방에는 너의 자손이 와서 번식하고, 사탄의 행실을 본받아 자신들을 더럽힐 것이며 그들은 홍수로 망할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쪽에(in the east in Eden), 즉 에덴동산 내의 동쪽 지역에 거처했지만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는 동산의 서쪽에 살았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를 쓴 홀거 케르스텐은 '낙원의 동쪽'을 낙원 밖의 동쪽이라고 해석하고 그곳이 현재의 캐시미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서쪽 경계선 지방에는 너의 자손이 와서 번식하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낙원 밖 서쪽지방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즉 홍수 전의 히브리족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현재의 터키 지방에서 살았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수메르족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점토판 문자들이 발굴된 것이다. 단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후손들은 동쪽으로부터 분리되어 **'산(아라랏)의 남쪽 검은색의 기름진 땅**에 살았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이었고, 훗날 그곳에서 흥기한 고대도시 니느웨가 영국사람 레이어드에 의해 발굴된 것이다.

---

2) 이하 모두 문학수첩 간 '숨겨진 성서'에서 인용.

그들 모두 대홍수에 의해 희생된 후 수메르의 유일한 생존자 우파니쉬팀은 '달문'이라는 영생의 도시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홍수 후의 문명을 발생시킨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건설자였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창세기 10장의 내용들이다.

함(노아의 둘째 아들)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지배자였으며 시날(메소포타미아)땅의 바벨, 에렉(우룩), 약갓, 갈레 등의 도시를 건설하고 아씨리아 때에는 니느웨, 르호봇일,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다....

니므롯이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건설자였다는 뜻이다. 영국인 레이어드가 발굴한 니느웨 유적지도 그곳 주민들이 니므롯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한다.



### < 5 > 종교와 뉴에이지

뉴에이지 운동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 UFO가 등장하면서부터 생긴 문화현상이다.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시대(New Age)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주 형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해석이 다르고 또 다른 가치들을 주장하는 것 같다. 뉴에이지의 특성은 기존의 종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의 형태와 사상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종교들에겐 커다란 도전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도전이라고 생각지 말고 이제 종교도 도식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 시대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보다 친근감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큰 매력을 주지 못한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종교가 배척받고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종교는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고, 또 절대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명이라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마존의 정글에 헬리콥터가 착륙한다면 그들은 신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타나면 아무도 그것을 신의 현시라고 생각지 않는다.

신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서 썩어 트는 것도 신성이 배제된다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증산선생도

말했다. 신명(神明)이 응하지 아니하면 세상만사가 모두 헛것이라고. 뉴에이지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성은 두려운 것이고, 머나먼 곳에 있으며, 인간으로선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혼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과학의 또 한 단면인 것이다.

과학과 종교는 상극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종교 자체의 정체성을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신성은 불가침의 영역이며 불가해(解)의 존재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 같다. 그 결과는 신도들을 장님으로 만들 뿐이다.

신성은 인간들의 접근을 그토록 꺼려한단 말인가? 높고높은 누각이나 깊고깊은 심연 속에 숨어서 세상을 향해 절대복종만을 가르치는 고압적인 아버지란 말인가?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부처님이 그렇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존재일까?

신성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인간을 품으려 한다고 성경에서도 말한다. 핵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지구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이 버릇없는 행동이 될까?

인류는 분명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아버지 하느님을 이해할 수도 있는 나이에 접어든 것이다. 다 큰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만 하는 것도 오히려 꾸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옆에 앉히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도와 행성의 관리자가 되도록 키우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일 것이다.

고로, 기존의 종교들은 뉴에이지 운동가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별나고 뻗아가는 자식이지만 그 별난 구석에는 쓸 만한 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때론 순종하는 암전한 자식보다 건달 같은 한량기 있는 자식이 크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현재의 신구약 성경보다 비경전들에 더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비경전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황당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종교의 모태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현재의 정경(正經) 속

에는 그런 진귀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글자 하나라도 고쳐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함께 비경전 문서들을 배척하며 그것들을 읽는 젊은이들을 꾸짖는다면, 그것은 자식마저 장님으로 만드는 고집 센 아버지의 모습일 뿐이다. 비경전들에 실려있는 기적적 사건들이야말로 신성의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이기 때문이다.

UFO의 등장과 함께 발생되기 시작한 뉴에이지 운동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 UFO와 함께 나타난 우주인들이 과거 종교의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구상의 종교인들은 종교적 벽을 허물기가 어려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종교와 UFO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이다. 유대교의 신인 여호와를 악한 외계인이었다고 성토했는 뉴에이지 부류도 있고, 유교나 도교 같은 동양사상을 선호하는 뉴에이지 신봉자들도 있고, 인도의 고대 신비주의나 불교적 철학에 매력을 느끼는 뉴에이지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종교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안다는 것이고 또 새시대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바깥에는 더 발전된 문명을 누리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UFO의 등장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UFO를 사탄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적 측면만 강조하며 종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뉴에이지적 시각을 강력히 배척하는 것 같다. 한 때 신흥종교인 기독교를 폄박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서 발생된다. 믿음과 소망을 발판으로 갖지 못한 사랑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속담에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신성(神性)의 권능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천국이 실재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도 모세가 만난 여호와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느님**'이었다. 동양적 신비주의처럼 관념의 세계를 사색하는 형



이상학적 종교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반 뉴에이지 운동에 가장 열성적이라는 사실은 아이로닉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 UFO나 우주인이란 단어는 없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하느님'은 히브리어 원본에는 '엘로힘' 이라고 되어 있고 엘로힘은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란 뜻의 단어라고 한다. 또 예수님 탄생시에 동방박사(페르샤의 철인)들에게 길안내를 했던 '밝은 별'은 무엇이였을까? 또 그날 밤 마굿간 근처의 목동들에게 나타난 빛과 천사들은 오늘날 UFO 현상과 너무나 비슷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한단 말인가? 구약과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천사들은 과연 어디서 온 존재들이였을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즉, 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에녹과 엘리야는 죽어서 영혼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한다. 그들이 간 곳이 저 우주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에녹과 엘리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그 외에도 자신이 하늘나라에 갔었다고 말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하늘나라 체험을 기행문으로 남겼다. 그들이 갔던 하늘나라가 저 우주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는 많은 불임증의 여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천하장사 삼손의 어머니,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은 제사장 사무엘의 어머니, 세례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도 불임증의 여자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와의 접촉이 없이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한 임신이었다고 하니까 빼놓드라도, 그 외의 불임증의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불임증을 치료받아 임신하게 되었을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위와 같은 성경의 기적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시험관 아기 기술은 자연스런 생명공학 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잖은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불임증의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들 모두 성령에 의해 임신되었다고 말

하지는 않는다. 오직 마리아만 성령에 의해 임신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시한 많은 불임증의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오늘날의 생명공학 기술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일부 신학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과 그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지 우주인 따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마리아 외의 모든 불임증의 여성들 역시 순수한 성령에 의해 임신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는가?

'우주인'이란 단어는 종교적이기보다 과학적인 단어다. 그러나 그 우주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의 종교적 가르침들과 일맥상통하는 우주인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십세기 동안 지켜온 기존의 종교적 틀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을 가로막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는 1950년대에 미국의 다니엘 프라이에게 전한 우주인의 메시지다. 다니엘 프라이는 물리학, 천문학, 로켓공학 분야의 권위자였다. 그가 받은 메시지는 사용한 단어만 다를 뿐 성경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랑, 화합, 평화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불빛을 뒷박 밑에 감추어 두려고 합니까?...우리는 당신들 행성의 종족들 가운데 몇 개의 불빛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빛들이 점점 더 밝아져서 지구인들을 장님처럼 만들고 있는 심각한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당신들 행성에서 일찍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일을 성취한 사람들 가운데 조롱받거나 모욕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당신이 밝히는 불빛은 많은 친구들을 부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의 문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1)</sup>

---

1) 새천년사 간 박찬호 편저 '외계문명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